

광주·전남 보건사업 공헌 6명

광주시의사회 ‘무등의림상’



이정남씨



이정애씨



백학연씨



정광익씨



조중동씨



강흥규씨

광주광역시의회(회장 최동석) 무등의림상 운영위원회는 14일 회의를 개최하고 ‘제23회 무등의림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 광주 영주체육관 양궁장에서 개최되는 제22회 광주시의 날 행사장에서 열린다.

무등의림상 ‘봉사상’은 이정남 신경정신과 원장에게 돌아갔다. 이 원장은 1992년 광주 지방법원 소년자원보호자로 위촉된 이래 20년 동안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한 점이 큰 평가를 받았다.

‘학술상’은 이정애 전남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노인보건사업·고혈압·당뇨관리·뇌졸중 예방 등 광주·전남 보건사업 분야에 공헌한 점을 인정 받았다. 백학연 조선의대 내과 교수는 당뇨병 및 갑상선 환자, 내분비내과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해오며 학회 활동 및 연구 분야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 정광익 광주보훈병원장은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후원 및 봉사활동은 물론 SCI논문들을 비롯해 지역의 의학발전에 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 의료단체와 소통·협력 강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조중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심사위원장이 ‘공로상’을 받게 되며, 빈곤퇴치를 위한 아프리카 말라위 구호기금 마련운동 등 많은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강흥규 베스트로회장이 ‘특별상’ 수상자로 뽑혔다.

/채희종기자 chae@

조대부고 자랑스런 부고인·은사상

임동오·최종삼·강종근씨



임동오씨



최종삼씨



강종근씨

조대부고 총동창회(회장 김성호)는 최근 모교에서 동문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랑스런 부고인상과 자

랑스러운 은사상을 시상했다.

이날은 임동오(9회) 중부대 총장, 최종삼(18회) 대한체육회 선수총장이 자랑스러운 부고인으로 선정됐다. 자랑스러운 은사상은 강종근(18회) 조대부고총동창회 사무총장이 선정됐다.

임동오 총장은 지난 1995년 남미시시피대학교 객원교수와 목포대 경영대학장을 거쳐 중부대총장으로 재직하며 모교발전과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최종삼 선수총장은 동아시아유도연맹 회장으로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심판을 지냈고, 대한체육회 체육상 공로부문 최우수상(2006년), 홍조근정훈장(2013년)을 수상하며 체육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강종근 사무총장은 모교에서 24년간 수학교사로 근무하고, 3년간 교장을 역임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교육관으로 후진양성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FIFA 에이전트 합격 호남대 최성준 씨

“축구 꿈나무 해외 진출 다리 될 것”

“축구를 좋아하고 재능이 뛰어나지만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해 빛을 보지 못한 선수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런 꿈나무를 발굴해 기회를 주는 에이전트가 되고 싶네요.”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한 국제축구연맹 에이전트 시험이 최근 서울시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2001년 시작해 올해로 13회를 맞는 올해 에이전트 시험에는 96명이 응시해 26명이 최종 합격했다. 상대적으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올해와 달리 지난해 시험은 119명이 응시해서 1명만 최종 합격했다.

대학 새내기로 당당하게 에이전트에 합격한 최성준(24) 씨는 “작년에 워낙 어려워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합격했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꿈만 같다”며 “총 20문제 중 14개 이상 맞추어 합격인데 14점으로 아슬아슬하게 합격해서 더욱 기분 좋다”고 밝은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다.

에이전트는 선수를 대신해 구단과 연봉, 이적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선수가 경기 외적인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평범했던 최씨가 가슴속에 축구를 품게 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일전 때문이다.

“지난 1997년 9월28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전은 ‘도쿄대첩’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이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았죠. 그 경기를 본 후 저도 축구를 좋아하게 됐고,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어요.”

여수에서 나고 자란 후 경남 거제도에서 선박을 전공했던 최씨는 2010년 군 복무 중 호남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축구학

과가 생겼다는 신문기사를 접했다. 축구를 정말 좋아하지만 축구와 관련된 일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도 잠시, 그는 2011년 제대 후 1년간 준비해 호남대 축구학과 13학번 신입생이 됐다.

막연하게 축구를 좋아했던 최씨는 에이전트로 활동 중인 같은 학과 동문 최우전 선배를 통해 시험을 알게 됐고 에이전트의 꿈을 키우게 됐다. 선수와 구단 간 계약관련 조항과 법률 등 공부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닥ça이 축구 공부를 후회하지 않는다.

화려함 보다는 투박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반드시 수행하는 코트디부아르 출신 축구 선수 디디에 드로그바를 가장 좋아한다는 최씨는 해외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한 외국어를 부지런히 익혀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신입생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요. 저도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꿈을 이뤄나가는 만큼 학생들이 인생을 너무 짧게 보지 말고 긴 장래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네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김상경, 전대병원서 촬영중 깜짝 위문



“제가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병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치료는 병원에 맡기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 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할게요.”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송은규)에서 영화 ‘아빠를 빌려드립니다’을 촬영 중인 영화배우 김상경(국엔터테인먼트)이 14일 오후 환자를 감쪽 같게 웃겼다. 이

날 위문은 영화 촬영차 광주에 온 김상경이 병원관계자로부터 30대의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한 달 이상 병원

에서 힘들게 치료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즉각 방문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영화 ‘아빠를 빌려드립니다’에서 차대노인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그는 실제로 환자를 위문했다.

환자가 있는 6인용 병실에 들어선 그는 환자의 손을 잡고 패를 기원했으며, 자신이 직접 사인한 카드가 담긴 과일바구니도

함께 전달했다. 이를 지켜 본 주위의 환자와 의료진은 그의 따뜻한 마음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김상경 씨의 위문으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 환자는 “팬이었지만 직접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위로까지 받게 되니 너무 기쁘고 고맙다”면서 “빨리 건강을 되찾아 이 순간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김상경씨를 응원하는 영원한 팬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

전남녹색지원환경센터

中 연변대와 협력 강화



전남녹색지원환경센터가 중국 연변대학교 천연자원 연구센터(백두산 기능성분자)와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12일 전남환경센터에 따르면 백병천 센터장 등 연구진들이 최근 중국 연변대를 방문, 양국가의 공동과제에 대한 세미나와 정보교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출범한 전남환경센터는, 환경관련 전문가지원과 지역 환경현안 연구, 지역민 환경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통해 전남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남 지역 산·학·민·관이 공동 참여해 설립됐다.

백병천 센터장은 “연변대와 이번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더욱 발전 된 환경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강지현 전남대 교수, 연구재단 연구자 선정



전남대학교 국제학부 강지현 교수가 2013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 우수성과 연구자로 선정됐다.

강 교수는 지난해 ‘일본대중문예의 시원(始原), 에도회화와 짓펜사 잇쿠’(소명출판)를 발간, 한국연구재단의 우수성과 사례 50선 중 하나로 선정돼 16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인증패를 수여받는다.

강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의 원조인 ‘에도 회화’와 일본 대중문예의 시원을 일군 소설가 ‘짓펜사 잇쿠’이 일본 만화, 저패니메이션의 저력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동신 광주일보 광고국장 시집 펴내



“내 자신의 부족함을 무릅쓰고 더 아름답고 멋진 삶을 나누고자 몇 편의 글들을 모았습나다.”

회갑을 기념하여 첫 시집 ‘동행의 축복’(에이원아트)을 발간한 김동신 시인(광주일보 광고국장)은 “졸작”을 내놓는다며 자신을 낮췄다. 사람, 추억, 어머니, 가족 등 일상의 친근한 소재를 다룬 101편의 시들은 여백의 수채화처럼 잔잔한 울림을 준다. 자연에 대한 감사, 애뜻한 추억, 가족 사랑이 소박하면서도 맑은 정감으로 다가온다.

특히 ‘우리 아가 서울 가면’ ‘나의 사랑 윤야야’라는 시에는 직접 곡을 붙인 악보도 수록돼 있어 눈길을 끈다. “살아오는 동안 저에게도 사랑, 기쁨, 상처, 후회의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되돌아보면 모든 일에 감사할 뿐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한 김 시인은 주어진 일상을 섬리하고 감사의 시각으로 담아낸다. 김 시인은 2012년 월간 문학세계 신인문학상 시 부문에 ‘꽃밭 세상’ 외 4편이 당선돼 등단했다.

발문을 쓴 CTS광주지사장 김용욱 수필가는 “김 시인의 눈길이 닿으면, 그저 그렇고 무심한 풀 한포기 꽃 한송이마저도 곧장 생명력을 얻어 우리의 가슴속에 그 색깔로 영원히 피어나 소롯이 안기게 됨을 느낀다”며 의미를 부여한다.

한편 김 시인의 ‘동행의 축복’ 출판 기념회 겸 감사예배가 26일(토요일) 오후 6시 삼촌동 Y웨딩컨벤션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도공무원교육원 최진석 교수 초청 강좌



전남도공무원교육원(원장 박학균)은 최근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인문학 강좌에 신인 출신 최진석 교수를 초청해 도 산하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강좌는 서강대 최진석 교수가 집필한 ‘인간이 그리는 무늬’란 책을 주제로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최 교수는 “인문학이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관찰하는 것이라며, 선진국이 장르를 열면 후진국은 이 장르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인문학을 통해서 얻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저자 사인회와 포토타임을 가지며 모처럼 고향을 찾은 최진석 교수와 정담 등 소통을 통해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행사도 가졌다.

박학균 원장은 “인문학 통찰을 통해 폭넓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명한 강사를 초청 공직자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목기자 kroh@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이경원·권정희씨 장남 현우(두산중공업)군 성성현(전 수자원공사)·정충엽(신가초등학교 교사)씨 장녀 수진(초등학교 교사)양=19일(토)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웨딩홀 1층 제종홀.

▲김기식(보성군청 주민복지실장)·안금숙씨 아들 우재(한국 기상산업진흥원)군 최순복(전 인천남동시범공단 본부장)·송희순씨 딸 현정양=20일(일) 오후 3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동창동문회

▲2013광주공교(동맥인) 한마음 큰잔치=20일(일) 오전 9시~오후 5시 모교 운동장. 주최 광주공교 총동창회(회장 홍석태) 062-511-1946.

▲송원고 총동문 한마음대축제=20일(일) 오전 8시30분~오후 5시 송원대학교 운동장 062-384-7447.

종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월례회의(회장 이보희)=22일(화) 오전 11시 011-605-2059.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남초등학교 및 무등중학교 학부모 대상 꿈을 키워주는 부모 되기 교육 안내=16일(수) 오전 10시~낮 12시 광주남초등학교 교육복지실. 주제는 ‘반향일까요? 사춘기일까요?’ 반향을 대하는 부모의 자세(강사 : 이요한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062-233-0468.

▲광주남구주목관리센터=5대중목(알곡수, 인타래, 마약, 도막, 니코틴)에 대한 상담을 제공. 21일(월) 오

후 6시 30분 062-412-1461, 062-413-1195.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시민 학생의 ‘인성함양’과 ‘성찰과 미래’를 위한 철학박사의 인문학강좌 ‘우리 꿈 우리가 키우자’=‘논어’(매주 토요일 오후 4시)·‘대학’(매주 월요일 오후 7시)(5월~12월) 광주YMCA 2층(수준부관·누구나 수강가능 무료) 010-3625-5433.

▲‘금영건설팀’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서류 검토 작성 대행, 채테크 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모집

▲‘경제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참가자=만 22세~45세 구직자 대상, 참

가비 무료, 수료증 ‘경제교육지도사 자격증’ 발급, 수료 후 학교, 단체 강사활동 가능. 모집기간 25일(금)까지. (사)인재육성아카데미 062-224-7733, http://www.mdsarang.com

▲사)한국영화인 총 연합 광주 지회 ‘엑스트라, 단역 대 모집’=광주, 전남에서 촬영하는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실 보조출연자분 모집. 영화를 좋아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키는 분 환영. 062-385-9077.

▲다음카페-침된 나(?)찾기 학교 무료 교육=우울증, 불면증, 두통, 불안성리, 이명, 환청, 환상, 강박관념, 대인공포증, 가위눌림, 악몽, 자살충동, 신내림, 귀신들림, 정신질환, 신경성질환, 만성난치·금연금주, 악습·가족갈등, 비만·체질교정, 불생불사, 8고해탈, 진리체득, 학습력강화, 최면, 원인을 알 수없는 병 등 010-6609-9068.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광주광역시지부 특전사=예비역 및 회원 수시 모집 062-

225-6500, 011-610-5575.

▲바이옴(유산균·효소) 두암점=장, 소화기 질환, 피곤, 변비, 과민을 이유식, 건강, 아토피, 갱년기, 관절, 대사성질환,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회원 수시모집 062-266-5800, 010-6614-2320.

부음

▲이정록씨 별세 재가(법무사 유정현사무소)·재생(우동민철강)씨 부친상=발인 16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이재룡씨 별세 관행(광주과학기술훈 부총장)·운행(우주엠에스 아시아파이프 대표이사)·시행씨 부친상 백 란(호남대 교수)씨 시부상 김상은(울산대 교수)씨 방부상=발인 15일(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20호실 02-3410-6920.

▲홍순실씨 별세 김용철·용기씨 모친상 김철수(전북장애인배드민턴협회장)씨 방모상=발인 15일(화) 정

읍시 호남장례식장 063-533-4500.

▲양승현씨 별세 박인환(현대중공업부장)·정완(광주시 정보화 담당관)·경희·정희·숙희(일곡중고교사)·원희(광주에덴병원 간호부장)씨 모친상 송기수(고려교 교사)·방준환

(전남도 대변인실)씨 방모상=발인 15일(화) 천지장례식장 302호 062-527-1000.

▲고주남씨 별세 광익·광현·광희씨 부친상=발인 15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謹 삼가 故인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 김태삼 님 (여/78 세) 子/子婦: 문화성/윤재정, 현성/황해지, 대성/김진화 女/婿: 문도희/이성근 ● 호 실 : 201호 ● 발 인 : 10월 16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1	301호 故 최남근 님 (남/78세) 子/子婦: 최종태/정순영, 진태 女/婿: 최미순/이문식, 민아/김길태 ● 호 실 : 301호 ● 발 인 : 10월 15일 ● 장 지 : 고동 두원면선영 ● 연락처 : 227-4382
401호 故 김광원 님 (여/81세) 子/子婦: 전성규/염선년, 박순태, 창규/이정숙 형규/이오승, 종규/박은지 女/婿: 전성희/김형용, 영희/이영기, 선희/최길만 孫: 전광렬, 광선 ● 호 실 : 401호 ● 발 인 : 10월 16일 ● 장 지 : 임실호국원 ● 연락처 : 227-4383	402호 故 송형영 님 (여/72세) 子/子婦: 송태현/임미경, 장현/박수영 女/婿: 송은주, 은미/문대영 夫喪: 송고원 ● 호 실 : 402호 ● 발 인 : 10월 16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14
101호 故 이동석 님 (남/63세) 子: 이재현, 재홍 女: 김한주 未亡人: 염현숙 ● 호 실 : 101호 ● 발 인 : 10월 15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5	102호 故 송남선 님 (남/62세) 子: 송이섭, 상현 ● 호 실 : 102호 ● 발 인 : 10월 16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6

孝 金 母 喪 禮 式 堂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